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30 차 , 신약 신학에 비추어 본 에베소서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해석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번호 30, 신약 신학에 비추어 본 에베소서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제가 신약에 대한 제 자신의 독서와 연구에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신학적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다른 신약 신학과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이 구약성경, 특히 창조 이야기에서 어떻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서 발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창조에서 성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들만 살펴보는 대신 두 개의 신약성경 본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고 다양한 신약성경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개의 신약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신약성경 신학에 비추어 그 본문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러한 주제들이 이 구절들에서 어떻게 합쳐지고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 신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내용의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내용의 대부분은 이전에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흐름을 간단히 모아서, 지금은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나 비유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특히 이 구절들을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읽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 생각에, 궁극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의 본문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원래 의도, 원래 맥락, 저자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에 비추어 연구하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더 광범위한 성경 정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정경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계획의 더 광범위한 구원적 역사적 발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구절을 연구하는 마지막 단계는 전체적인 발전,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성경 신학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한쪽 눈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 신학의 빛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이해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1-22절이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성경적 신약 신학을 발전시키는지, 어떻게 그것에 기여하는지, 그 구절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조명되는지, 그리고 성경 신학이나 신약 신학의 빛에서 볼 때 그 해석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1-22절이고, 저는 그 구절을 전부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부를 읽을 것이지만, 2장 1-10절에서 더 넓은 맥락에 놓으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죽음과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악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씨를 뿌리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이 시대에,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1-22절을 보면, 2장 1-10절의 구원은 또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악한 권세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새로운 인류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인류로 연합되어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2장 1-10절이 개인적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며, 또한 공동체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합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인류로 합치는 결과를 확실히 낳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본문에서 성경 신학을 하는 것의 일부는, 신약 신학을 하는 것의 일부는 구약의 선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신약성서 본문의 주요 신학적 주제와 발전에 대한 단서의 일부는 구약성서의 암시, 저자의 사고를 알려주고 신약성서 저자의 신학에 기여하는 구약성서의 인용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2장 11-13절에서 저자는 구약성서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과 11-13장에서 저자는 구약성서로 시작하면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던 그들의 이전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출생으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으나,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전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언약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11-12절의 이 조건이 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13절에서 이사야 57장과 19절을 흥미롭게 암시함으로써 그 역전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7장과 19절은 이사야의 더 큰 부분에 있으며, 그는 회복의 날을 예상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그의 백성을 유배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데려와서 그와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57장 19절에서 저자는 그들의 입술에 찬양을 만들고,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화를 주며, 주님과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사야 57장 9절에서, 바울이 13절에서 암시한 본문에서, 멀리 있던 자들은 유배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에게는 멀리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시민권을 누리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이사야의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이 12절에서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그것을 즐기고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함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고 즐기고 있으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한 것이며, 저자가 이사야에게 57장과 9장에서 호소한 것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데, 바울이 14절부터 말하듯이,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57장에 대한 암시를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하지만 이사야의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52장과 7절에서 그가 평화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자들의 발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가져다주겠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는데,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과 분열을 가져온 장벽을 제거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언급된 마지막 인물인 예수가 우리의 평화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두 집단을 하나로 만들고 적대감의 분리 장벽을 허무셨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대감이 장벽을 형성했고, 그는 육신 안에서 계명과 규정이 있는 율법을 제쳐놓음으로써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 말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고 이방인을 배제하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누는 벽을 성막의 벽과 동일시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된 다른 단어는 더 큰 모욕을 암시합니다. 저는 율법이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분리 울타리 또는 분리 벽이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 라고 말했을 때, 평화의 언어는 적대감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화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심으로써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14절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주목하세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자신 안에서 두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5절. 17절. 그분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평화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한 번, 17절은 이사야 57장과 9장의 직접 인용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오셔서 멀리 있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파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마도 이사야 52장과 7절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52장과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시온에게 너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의 발이.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바꾸는 화해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에서 회복된다는 이사야의 약속의 성취로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또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있다는 것을 본다.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는 새로운 상황을 가져오므로, 우리는 이사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새로운 행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평화롭고 화해된 관계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인류로 통합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흥미롭게도, 더 이상 팔레스타인 땅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세상에서. 그들은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15절은 또한 이사야에 대한 추가적인 암시를 상기시켜줍니다. 15절에서, 그의

육신에서 율법과 계명을 폐하심 으로써 , 그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인류를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와 새로움의 언어를 다시 주목하세요.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5장에 약속된 대로 이사야의 새 창조의 시작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창조에서 우리는 화해된 인류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화해와 성취라는 주제는 새 창조와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그의 백성을 새 창조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발견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의 새 인류를 창조하고, 장벽을 제공하던 율법을 제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사야의 약속된 회복의 성취로 하나의 새 인류로 모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이제 회복되고 새롭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13절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자가 유대인과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시민권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화해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이방인을 포함하고 포용하도록 확장되었지만, 이 새로운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갱신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지만, 둘 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작된 새로운 창조에서 회복되고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과 이사야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에서 성취되어 하나의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개의 별개의 백성이 없고, 둘 다와 관련된 약속이 서로 다르지만, 대신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사야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발견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전체 구절은 19-22절에서 중요한 언급으로 절정에 달하는데 , 회복되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취에서, 제 생각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거하실 동산 성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류가...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죄 때문에 관계에 단절이 있고, 창세기 3장에서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단절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장막과 성전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새롭게 되고 회복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성전에 거주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성전에 대한 약속은 물리적 구조물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탈출의 궁극적인 목표, 유배에서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인류에서 성취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영을 통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요엘 2장, 이사야 44장의 성취에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이며,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막, 장막을 치는 성전의 임재, 그리고 실제로 에덴 성소의 임재가 지금 그의 백성 안에 거합니다.

그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21절을 주목하세요,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합쳐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사시는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과 시민권과 그들의 약속에서 분리되어 있던 이방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사야가 약속한 회복이 새로운 창조에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에서의 회복의 목표, 창조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목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언약의 영을 통해 거하십니다. 제가 살펴보고 연결하고자 하는 다음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이 이사야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전 거처의 개시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 있었고, 성전에 합류한 각 지체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과정의 완성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록의 절정이 있고, 신약 성경 신학의 절정이 있고, 성경 전체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대한 간략한 토론을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새 창조와 새 에덴을 발견합니다.

21.1 요한은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은 지나갔고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에 대한 명확한 암시이며, 선지자는 새 창조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은 그것이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사야 65장 자체와 요한이 21장 1절에서 말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계시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기록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읽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을 새 하늘 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그 약속들의 완성에 대한 그의 환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새 하늘 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 2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리고 강의 양쪽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여기서 에스겔 47장을 암시하는데, 그 자체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봅니다.

이제 요한은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과 그 양쪽에 과일이 있는 나무를 봅니다.

이제, 요한은 거기서부터 끌어옵니다. 하지만 요한은 또한 에제키엘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나무의 언어로 끌어옵니다. 단 하나의 생명나무.

새로운 하늘 과 새로운 땅 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을 봅니다 . 그는 마지막 환상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에덴.

우리는 또한 새 예루살렘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이사야 65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의 예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창조할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내 기쁨이 되게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도 이사야 65장의 성취로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사람들과 동일시됩니다.

요한 계시록 21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은 기술적으로 실제 도시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실제 도시나 도시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한이 건물 이미지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매우 일관되게 건물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을 위한 은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부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고 요한은 계시록 19-21에서 신부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즉 사람들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 성취를 찾습니다. 이사야 65장의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사람들 자신은 새 창조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에덴,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조되는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신부와

결혼 이미지를 여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구약학 교수, 학자, 목사인 고든 휴겐버거가 결혼과 언약에 대한 책을 썼고, 구약에서 결혼과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계시록 21장에서도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혼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새 언약 관계의 완성이자 완성의 일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맥락에서 우리는 결혼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신부는 모든 화려함과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결혼은 이제 완료되었고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종종 매우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관계였으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간통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신부, 남편과 아내로 묘사되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역시 구약의 성취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었고, 이제 새 창조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견되는 긴 약혼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고, 신부는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녀를 흠 없이 그분 앞에 내세우는 것이었음을 성취하기 위해 제시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시록 21장에서 결혼의 궁극적인 완성에서 흠 없고 완벽하며 거룩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계시록 21장의 이 귀중한 보석 언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방식일 것입니다.

모든 기초가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수정처럼 빛나고 귀중한 보석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모든 화려함으로 장식된 신부가 마지막 결혼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약의 성취와 에베소서 5장에서 발견되는 것의 성취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또한 요한이 환상에서 청각으로 전환하는 21장 3절의 새 언약 공식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즉 청각, 그가 듣는 것, 그리고 그가 듣는 음성은 그가 본 것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1:3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있고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공식의 구체화, 마지막 구체화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에스겔 37장, 아마도 레위기 26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둘 다 언약 공식의 반복이지만, 아마도 언약 공식에 대한 다른 언급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에 거하려는 의도의 궁극적인 성취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언약의 공식이 다시 반복되는 새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의 관계로 거하심으로써 구원 역사의 최종 목표가 달성됩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새 에덴, 새 예루살렘, 그리고 구약의 본문을 성취하는 새 언약과 새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성막의 궁극적인 목표가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주제를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의 전체 목표인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21:3의 언약 공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거처, 그의 장막, 그의 성전의 임재가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주를 취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장막의 임재, 장막의 임재, 또는 그의 백성과 함께 성전에 거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새 언약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완성된 완성된 새 언약 관계에서 도달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가리키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탈출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지만, 에덴 동산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원래 성소이자 성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던 곳입니다. 구약시대 후반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원래 성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성소에 거하려는 의도를 회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이 성전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본 것은 요한에게 독특한 점은 새로운 창조에서, 요한의 환상에서,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그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의 목표, 성전이 기대했던 것,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직접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사실이었던 것이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도착했고, 옛 창조물이 죄와 슬픔과 죽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제거되었으므로, 21장 1절, 하나님은 별도의 물리적 성전이 필요 없이 그분의 백성과 직접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가리키던 것이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주목하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명확한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새

예루살렘 비전,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 비전은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방금 NIV를 훑어보았는데, 그 위에 있는 제목이 에덴 회복(Eden Restored)인 것을 알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에덴은 원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래의 성소였습니다. 게다가 요한이 인용한 다른 본문인 에스겔 47장은 에덴 동산과 성전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자신이 성전과 에덴 언어를 결합했습니다. 이제 요한도 에스겔 47장을 암시하면서,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본 2절의 생명나무 이미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환상은 새로운 성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하는 것은, 비록 그가 "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과 같은 다른 신약 본문에서 발견한 것과 일치하게, 성전 언어는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백성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요한은 성전을 측량하는 에스겔의 환상인 에스겔 40-48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그는 그것을 예루살렘 창조물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전체와 모든 백성에게 적용합니다. . 그러므로 측량되는 것은 별도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 모양인데, 이는 열왕기 상 5-7장의 지성소 모양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고, 구약성경에서 장막과 성전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금이 창세기 2장에서 원래 에덴 동산 주변에 있는 귀금속 중 하나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도시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저자는 그것을 구약의 장막과 성전과 분명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장막, 하나님의 성전 거처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22절에서 묘사한 것의 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전체가 건축되고 있으며, 각 지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새 창조에서 최후의, 궁극적인 종말론적 성전에서 그 과정의 완성을 봅니다. 이를 더욱 입증하기 위해, 이 환상의 성전 언어와 맥락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21장 19-20절에서 12개의 돌 목록, 19-20절의 12개의 보석은 실제로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흉갑에 있는 돌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8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22, 23, 24장에서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이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들은 그의 얼굴 과 그의 이름을 볼 것인데, 그것이 예배의 목표이며, 그의 이름은 제사장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등잔의 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새 예루살렘 새 창조 전체의 빛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등잔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계시록 21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는 의도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성소 정원에 대한 그의 본래 의도, 장막과 성전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그의 의도, 회복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기대는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 성전에서 성취되는데, 이는 별도의 성전 구조가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대신 전체

창조물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현존이 주입된 장소, 즉 하나님의 장막 성전 거처가 되며, 이는 전체 백성과 전체 창조물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제사장으로 기능하며, 그들 모두는 새 창조에서 하나님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새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새 창조에서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21장 12절 초반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다시 말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었고, 문에는 12명의 천사가 있었고,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은 이스라엘 국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동쪽에 문이 세 개, 북쪽에 세 개, 남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가 있었지만 요한은 어느 지파가 어느 문 방향으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도시의 성벽에 12개의 기초가 있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은 이제 새로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흥미진진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완성을 봅니다. 전체 구조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신 역사, 백성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 백성,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로 상징되는 것에서 성취를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바울의 비전은 다시 한번 요한의 계시록 21장의 비전에서 궁극적인 성취, 궁극적인 완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새로운 탈출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출애굽기의 탈출의 목표이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상했던 새로운 탈출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그의 장막과 거처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배를 간 후,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는 재건된 성전과 함께 유배에서 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탈출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같은 움직임이 여기 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노예와 죄에 대한 세상의 속박에서 구속하여 첫 번째 독자인 로마 제국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그들의 땅,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데려오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 장막을 세우십니다.

첫째, 탈출의 전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탈출의 목표와 예언자들이 약속한 새로운 탈출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제 완성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요한이 1절에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탈출 모티프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대부분 해설에서 말하듯이, 혼돈과 사악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것,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짐승의 집입니다. 바다는 종종 악마의 짐승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계시록 초반에, 당신은 13장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는 제거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 51장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새로운 탈출로 생각하는 본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51장, 여기 9절이 있는데, 새로운 탈출을 묘사하면서 이사야는 “깨어라, 깨어라, 주의 팔이여, 힘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탈출기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지난날과 같이, 옛 세대와 같이 깨어 있으라.

그것이 탈출입니다. 라합을 산산이 조각낸 것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그 괴물을 꿰뚫은 것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그러니 당신의 용이 있고, 당신의 짐승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당신의 용 짐승 유형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다를 말리고, 큰 깊음의 물을 말리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한 것이 당신이 아니었나요?

흥미롭게도, 이사야 51장의 홍해가 라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즉, 하느님께서 괴물 라합을 물리친 것은 언제인가요? 바다 괴물을 꿰뚫은 것은 언제인가요? 바다를 가르신 것은 언제인가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 같지만, 흥미롭게도, 타르굼, 아람어 의역, 이사야 51:9의 타르굼은 실제로 라합과 괴물을 파라오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9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악의 패배, 바다에 거주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의 패배로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요한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이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종말론적 홍해가 백성이 유업을 누리는 데 장벽을 형성했고, 악과 혼돈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적대적이며, 그들을 위협하고, 고통과 죽음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바다 괴물의 집이 이제 제거되고 말라서 백성이 건너가 유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땅이며, 이것이 처음에 탈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계시록,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과 이사야 65장의 예언적 기대의 성취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에덴입니다. 이사야 65장의 성취에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제 백성과 동일시됩니다.

결혼의 완성과 에제키엘 37의 언약의 성취를 통한 새로운 언약.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의 본래 의도와 장막과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성취되어, 새 예루살렘 전체, 즉 온 백성이 성전,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새로운 백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탈출에서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 탈출의 목표, 선지자가 새로운 탈출을 기대했던 목표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악과 적대감의 종말론적 홍해를 말려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동일한 규모의 장막 성전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구절에서 20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에서 읽은 것에 대한 준비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왕으로 통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첫 번째 창조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 지구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자 대표자로서 퍼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와 현존을 온 지구에 퍼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가 지구를 통치함으로써 그것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계시록 22장의 새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면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선택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군주제를 제정하셨고, 특히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편 2장과 다른 곳에서 땅의 끝이 다윗의 아들에게 그의 소유로 주어질 것이라는 시편의 일부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물인 온 땅을 다스리는 것으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21장 7절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무슨 모든 것? 요한이 21장에서 묘사한 새로운 창조물. 하나와 그 다음. 그들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사무엘하와 다른 곳에서 나온 다윗 언약 공식에 대한 요한의 해석.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다윗 언약 약속의 성취로 나의 자녀 또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온 땅을 상속받게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땅 끝까지 그의 소유로 주어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 언약의 성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합니다.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의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온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외에 유일한 곳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공식이 지금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되는 신약의 다른 곳입니다 .

이러한 주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2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며, 또한 왕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에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성전, 새로운 백성, 새로운 탈출, 새로운 통치와 통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그와 새로운 언약 관계로 세우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탈출을 통해 그들을 새로운 창조로 인도하여 그들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고, 이제 그들이 통치하고 통치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와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의 깊게 따라오시면, 이것이 우연한 일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 중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요한 계시록과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정, 오랫동안 기다려온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의 목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들 가운데 사는 새 창조에 거하면서 성취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번호 30이며, 신약 신학에 비추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에베소서 2장을 해석한 것입니다.